

# 북한 이탈주민의 금융생활 정착: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정은찬 | 통일교육원 교수 | eunchan1205@naver.com

## I. 머리말

2016년 현재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 수는 2만 8천여 명에 달한다.<sup>1)</sup> 경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을 취득하여 생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북한 이탈주민은 한국사회 경제생활에서 금융지식의 부재와 금융정보 이해 및 금융상품 선택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착 12년을 맞는 필자 역시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 북한과는 상이한 금융제도와 다양한 금융기관들, 한국어와 영어가 혼합된 생소한 금융용어, 특히 계약서에 나열되어 있는 장문의 내용들은 북한 이탈주민의 금융생활 정착에 주요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통일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2015년 11월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금융교육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똥똥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sup>2)</sup> 교재를 개발·보급하였다. 10여 명의 북한 이탈주민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실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착단계별 금융교육에 적합하게 구성한 본 책자는 그 수혜자인 북한 이탈주민의 금융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도적인 대안 마련으로 금융교육이 정례화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생활 실천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된다.

본고는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사회 금융생활 정착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

1)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2015년 12월 기준 한국 입국 북한 이탈주민 수는 28,795명이다. 이들 중 남성은 8,503명, 여성은 20,292명으로서 여성의 비율이 전체에서 70% 정도 차지한다.  
2) '똥똥이'와 '삼녀'는 북한의 평양방송에서 한주에 2회 방영되었던 '똥똥이와 삼녀' 프로그램 주인공 이름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김병욱 외, 『똥똥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 금융감독원, 2015. 11).

## II. 북한 이탈주민의 금융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금융생활은 개인 및 가계 경제생활에서 핵심을 이룬다. 특히 개인 스스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경제생활과정에서 형성되는 모든 경제거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생활 유지의 관건이 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생활하였던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정착 초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금융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되지만, 지역사회 정착 이후 실제 금융생활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사회 금융생활 정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생활 기초지식의 부재, 둘째, 합리적 선택 및 의사결정력 미비이다.

### 1. 금융생활 기초지식의 부재

대부분의 북한 이탈주민은 한국사회 금융생활 정착에서 경제 및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재를 절감한다. 금융교육을 초등학교 시기부터 받는 한국과 달리 북한에서는 보통교육단계(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sup>3)</sup>에서 경제관련 금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단계(대학, 전문대학)에서도 경제 전공자나 관련부서 일꾼에 한해서만 재정·금융교육이 이루어진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과정은 거의 개설되지 않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금융생활의 지혜를 습득하기 어려운 제도적 환경에서 성장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있어서 자본주의 한국사회 금융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스스로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동반한다. 무엇보다 금융생활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재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정착초기부터 겪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문제이다. 금융용어 이해의 어려움, 금융정보 선별과 금융상품 선택에서의 혼란, 복잡한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의 어려움, 금융투자 및 사기에 대한 두려움 등은 기초지식 부재에서 비롯된다.

금융생활에 대한 기초지식이 올바르게 확립되지 못한 북한 이탈주민은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하게 되는 근로소득의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거나, 흥수처럼 쏟아지는

3) 북한의 교육은 크게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으로 나뉜다. 보통교육은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을 포함한다. 고등교육은 3년제 전문학교(한국의 전문대학)와 4~7년제 대학을 포함한다. 북한의 교육학제는 1975년~2013년까지 11년제 무료의무교육제도에 준하여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 구성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12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 9월 25일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시행'이 법령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 및 금융상품 홍보에 쉽게 현혹되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소비심리 제어능력을 겸비하지 못하여 충동구매로 인한 과잉소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장단기 금융설계를 위한 미래비전의식도 결여되게 된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정착을 위해 최소한의 정착소요기간에 기초이론 교육과 함께 금융생활 실천을 위한 지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로부터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은 북한 이탈주민 대상별 특성(탈북시기 및 탈북유형, 시장경험 유무, 정착연한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합리적 선택 및 의사결정력 미비

누구나 금융생활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완벽한 의사결정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잘못된 판단은 아닌지, 효과적으로 통제 가능한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단일은행제도<sup>4)</sup>하에서 생활하였던 북한 이탈주민들은 다양한 금융제도(제1금융권, 제2금융권)<sup>5)</sup>가 운영되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증언한다. 하나원 수료 시 발급받은 통장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뱅킹 혹은 모바일뱅킹에 대한 상식이 부재하여 공과금(사용료<sup>6)</sup>)납부 및 송금을 위해 은행을 자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광범위한 금융정보 및 금융투자상품 광고를 접하면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험가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30~4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8~10만원 대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시한을 넘겨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한다. 또한 한방 혹은 대박심리에 현혹되어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 회복을 위해 자가용을 구입하였다가 몇 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중고차로 팔아넘긴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충동구매를 하거나, 신상과 이월상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쇼핑을 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금융생활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결정력이 겸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과, 경제적 형편을

4) 북한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은 '조선중앙은행'이 유일하다. 각 도, 시, 군에 지점이 있으며 저축을 장려하는 '저금소'가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은행 이용률은 현저히 낮다. 그 이유는 경제난으로 은행에서의 화폐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은행을 '돈 먹는 기계'라고도 표현한다. 저축과 예금을 하면 필요한 순간에 찾아 쓸 수 없다는 의미이다.

5) 제1금융권에는 일반은행(사중은행,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 포함되며, 제2금융권에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신용카드회사 등이 포함된다.

6) 북한의 경제생활 용어에서 사용료는 공과금을 의미한다.

고려한 소비심리 조절능력, 미래대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분별력이 축적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 스스로 근로소득의 효율적 배분, 신용카드의 지혜로운 사용, 보험 금융상품에 대한 적합한 투자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선택능력 및 의사결정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착 단계별, 대상별에 따라 맞춤형 금융교육 및 금융생활 지도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먼저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과의 경험공유(멘토·멘티)가 이루어져야 한다.

### Ⅲ.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금융생활 정착 방안

위에서 전술한 북한 이탈주민의 금융생활 정착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점(금융생활 기초지식의 부재, 합리적 선택 및 의사결정력 미비)은 교육과 실천이 결합된 해결방안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 우선, 금융생활의 주체인 북한 이탈주민이 교육을 통해 금융생활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학습된 금융지식을 실생활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생활역량(선택능력 및 의사결정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천하는 것과 정착단계별 금융생활 지도방안 수립, 성공적인 금융정착 로드맵 구축 및 공유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 1. 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의 실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 정착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한국에 정착한 28,795명(2015년 12월 기준)의 북한 이탈주민들은 탈북 및 입국시기가 다르며 탈북유형도 다양하다. 어떤 이유에서 탈북을 하였는지, 탈북시기는 언제인지, 재북 시 시장을 경험하였는지 등의 요건들은 정착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된다. 북한 이탈주민의 입국현황을 보면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2012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중국 체류(3~5년)기간이 다소 길며, 북한을 이탈한 이후 6개월 안에 입국한 경우는 전체의 30% 미만에 국한된다.

<표 1>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입국 현황표

(단위: 명)

구분	'98	'01	'03	'05	'07	'09	'10	'11	'12	'13	'14	'15	합계
남	831	565	474	424	573	662	591	795	404	369	305	251	8,503
여	116	478	811	960	1,981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5	20,292
(%)	(12)	(46)	(63)	(69)	(78)	(77)	(75)	(71)	(73)	(76)	(78)	(80)	(70)
합계	947	1,030	1,285	1,384	2,554	2,914	2,420	2,760	1,520	1,514	1,397	1,276	28,795

자료: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의 입국현황 및 탈북유형에서 특징적인 것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대량탈북사태가 발생했던 시기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탈북유형에서는 ‘생존’ 목적의 탈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과거에 비교할 때 최근에는 ‘좀 더 잘 살기 위해’, ‘자녀교육’, ‘남한에 대한 호기심’ 등의 목적으로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북하나재단이 2014년 북한 이탈주민 12,777명(1997년부터 2013년까지 입국한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탈북 동기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은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47.6%, ‘자유를 찾아서’ 32.2%,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21.5%, ‘가족을 따라서’ 21.1%, ‘북한체제가 싫어서’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up>7)</sup>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1997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입국한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2,444명)결과<sup>8)</sup>에서는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4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25.1%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 정착교육에서 대상별로 탈북동기 및 재북시 경제생활 방식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방법이 도입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에 정착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 정착 이전에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교육받게 되고, 정착 이후에는 지역사회 하나센터<sup>9)</sup>에서 안정적인 금융생활 유지 및 자산관리 방법을 교육받게 된다. 통일부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작년에는 『뽕뽕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 교재도 개발되었다. 다수의 북한 이탈주민이 정착과정에서 겪었던 금융생활 애로점들을 반영한 이 교재는 정착시기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들이 필요로 할 금융내용을 담았고, 특히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눈높이 교육내용에

7)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 이탈주민 실태조사』, 2014. 12. p.131.

8) 남북하나재단, 『2015 북한 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5. 12. p.91.

9)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로는 통일부가 있고, 각 지자체(17개 시·도)에 지역적 응센터(전국 29개 하나센터)가 있다. 민간기관으로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이 있어 전문상담사 90여명을 두고 있다(통일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15. 9).

〈표 2〉 금융교육교재 『똥똥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 주요 목차

목차	세부 목차 내용
1. 은행 이용	통장개설, 은행거래, 은행거래 방법
2. 저축과 합리적 소비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의 개념, [쉬어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3. 보험 이용	보험의 개념, 보험 유형, 민영보험 가입절차, 보험료 비중, [쉬어가기] 의료시설 이용방법
4. 부채와 대출	부채의 개념, 발생 이유, 관리방법, 대출시 검토사항, [쉬어가기] 금융사기 예방법
5.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의 개념, 사용범위, 발급방법, 분실·도난시 대응방법, [쉬어가기] 신용이란?
6. 금융투자상품 이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특징, 투자방법, 유의사항
7. 주택관련 금융상품 이용	임대아파트의 개념, 임대보증금 전환, 전세와 장기전세, 주택청약, [쉬어가기]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

중점을 두었다.

북한 이탈주민 대상 금융교육에서 교육 커리큘럼의 세부화와 대상별 맞춤형 교육내용의 구성,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의 교육 방안이 수립되어도 그 수혜자인 북한 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지 않으면 교육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의 금융 기초지식 부재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사회 정착에서 경제생활 부적응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교육대상자인 북한 이탈주민이 금융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훈이 될 수 있는 소재나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금융용어를 이해시키고 북한식 용어와의 대조를 통해 인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한다.

## 2. 정착단계별 금융생활역량 제고

북한 이탈주민의 금융생활역량 제고는 교육을 통해 학습된 금융지식을 실생활에서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해결과 직결된다. 정착 초기 받은 금융교육(금융용어 이해, 금융사기 예방법, 자산관리방법 등)은 최소 정착소요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 경험이 축적되어야 실천효력을 낼 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정보를 접하거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를 반복하여 받으면 합리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 실제 북한 이탈주민이 범하는 판단오류 사례들을 보면 금융생활의 주체인 북한 이탈주민 스스로의 자각과 주변 멘토의 조언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건들이 다수이다.<sup>10)</sup>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정착단계에 따른 금융생활 지도와 표준 로드맵 제시를 통한 금융생활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준다. 위에서 소개된 금융교육교재에서는 하나원 수료 후 정착 1년까지 은행·저축·보험 등의 이해, 1~2년 사이에는 대출·신용카드 등의 이해, 2~3년 정착기간에는 금융투자상품 이해, 그 이후에는 주택관련 금융상품 이해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sup>11)</sup> 이는 교육을 통한 금융지식 습득 및 이해에 중점을 둔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금융생활역량 제고는 최소한의 정착소요기간 동안 금융교육 시행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금융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합리적인 선택능력 및 의사결정력 검비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최소한의 정착소요기간을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하여야 하며, 단계별 금융지도를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북한 이탈주민 소비자역량 실태조사(2015) 결과에 의하면 북한 이탈주민의 소비생활 적응 소요기간은 7년이였다.<sup>12)</sup>

<표 3>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시기별 소비생활 애로점<sup>13)</sup>

(단위: %)

구분	3년 미만	3~5년	5~7년	7년 이상
품질 비교 어려움	14.6	12.9	13.2	8.9
소비생활용어 이해 어려움	19.8	19.0	12.3	11.8
광고 내용 사실파악 어려움	15.1	12.7	14.8	19.3
계약서 등의 내용 이해 어려움	9.0	7.5	12.1	11.0
사기피해 두려움	9.3	9.6	12.9	8.8
남한 경제체제에 어두워 혼란스러움	6.6	7.3	8.8	7.0
충동 구매 유혹	5.9	6.8	8.8	9.0
일반국민 대비 낮은 가계 소득	9.3	7.3	8.8	7.0
기대와는 다른 부족한 삶	5.6	8.4	6.0	7.0
부채에 대한 심리적, 감정적 부담	3.6	4.0	4.9	4.5
소비자 문제 시 피해구제의 어려움	1.3	3.6	2.3	0.8
계(무응답 제외)	100.0	100.0		

10) 구체적으로 상대의 설득에 넘어가 예금통장을 빌려주거나(대가 수용),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 제시에 현혹되어 투자시기를 당하거나, 자산관리를 빙자한 투자유도에 대량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감수하는 등의 사건이다.

11) 김병욱 외, 『홀몰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 금융감독원, 2015. 11, p.6.

12)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8월 13일 20~40대의 북한 이탈주민 6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역량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시기를 3년 미만, 3~5년, 5~7년, 7년 이상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북한 이탈주민의 금융생활 정착과 관련한 최소 적응소요기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소비생활 적응 소요기간을 대체하여 설명한다.

13) 『NEWSIS』, 『탈북자 소비생활 적응기간 7년 필요』, 2015. 8. 13 기사 재인용(<http://www.newsis.com>).

조사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의 일반국민(평균 62.7점)과 비교해 평균 67.6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비자역량<sup>14)</sup>은 평균 54.3점으로 일반국민(평균 66.1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소비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애로사항은 소비생활용어 이해의 어려움이였다. 정착시기에 따라 어려움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3년 미만 정착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19.8%에서 7년 후에는 11.8%까지 개선된 점도 부각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소비생활 교육의 효과와 정착단계별 경험축적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가 병행된 것에 근원이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정착에서도 최소 정착소요기간 동안 정착단계에 따른 금융교육과 금융생활역량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이탈주민 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방법의 지속적인 개발과 동시에, 금융생활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전문가와 멘토에 의한 금융생활 지도와 표준 로드맵<sup>15)</sup>구축이 실천되어야 한다.

## IV. 나가며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금융생활 정착은 금융지식의 습득, 현실대응능력(금융생활역량)의 제고, 건전한 금융생활의식의 겸비 등 여러 제반조건들이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제도적인 정착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금융생활 정착의 주체인 북한 이탈주민의 자발적 의지 및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금융용어를 인식하고, 금융 멘토의 조언 및 지도를 통해 금융정보 및 금융상품을 선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시행주역인 북한 이탈주민의 건전한 금융의식, 미래대비 장기비전의식이 성숙되지 못하면 성공적인 정착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한 이탈주민이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통한 정기적인 근로소득 취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하나재단의 『2014 북한 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12,777명 조사 사례자(1997~2013년 입국한 만 15세 이상)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56.6%, 고용률은 53.1%, 실업률은 6.2%, 월 평균 소득은 147.1만원(한국의 일반국민 223.1만원)이다.<sup>16)</sup> 또한 생계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수는 전체의 32.3%(한국의 일반

14) 소비자역량은 소비자의 지식, 태도, 실천의 총합체이다. 변화하는 외부 소비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만의 소비자행동과 역할을 만들어가는 힘을 의미한다.

15) 표준 로드맵은 북한 이탈주민의 금융생활 정착경험 중 성공과 실패사례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금융생활 정착 로드맵을 구축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이 공유하게 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6)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 이탈주민 실태조사』, 2014. 12.

국민 2.6%) 비중을 차지한다. 생활급여를 받겠다고 불균등한 소득 취득의 근원인 알바 유형의 직업선택에 치중하거나, 대박심리에 심취되어 특화된 고금리 금융상품(KB 국민희망적금, IBK 사랑나눔적금 등) 이용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주민 스스로 올바른 금융생활 원칙을 세워야 한다.<sup>17)</sup>

금융교육 참여의 적극성, 금융재원 마련의 성실성, 금융정보 활용의 신속성, 금융상품 선택의 합리성, 금융투자의 미래대비 및 건전성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자립적 노력에 의해 준수될 때 성공적인 금융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바람직한 금융 정책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7) 노동능력을 가진 북한 이탈주민이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취업을 선택할 경우 '북한 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 시행, 2014. 11. 29)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 이탈주민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하여 고용을 제고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에 참여하는 북한 이탈주민은 월별 저축금액을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5만원 단위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본인이 해당 월에 통일부와 약정한 저축액을 저축했을 경우 1:1 비율로 지급되며, 약정 2년 후 1년을 단위로 변경 가능하다.

